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국조선해양, VLCC 및 VLGC 수주

한국조선해양이 유럽, 아프리카 및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30만DWT급 VLCC 4척과 91,000CBM급 VLGC 3척, 40,000CBM급 LPG선 1척, 5만DWT급 PC 2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VLCC는 현대중공업에서, VLGC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할 계획이며 2022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Eneos splashes out \$160m on dual-fuel VLGCs at Hyundai Heavy

지난주 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고 알려진 VLGC 2척의 발주처는 일본의 Eneos Ocean이라고 보도됨. Eneos Ocean은 프랑스의 Total사와 두바이의 BGN International과 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현대중공업에 발주했다고 보도됨. 척 당 선가능 8,000만달러이고 납기는 각각 2022년 11월과 2023년 초 까지라고 보도됨. (TradeWinds)

STX조선, PC 3척 수주

STX조선해양이 일본의 선주사로부터 5만DWT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 3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STX조선해양은 2월에만 3개의 선주사와 10여척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알려짐. (선박뉴스)

금년부터 탱커 해체량 증가

2021년 올해 선령이 20년 이상 되는 탱커가 특별 검사를 받게 됨에 따라 탱커 해체량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지난 1월 탱커 해체 가격이 약 2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탱커 운임은 수년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됨. 2022년에 특별검사를 앞둔 선박은 137척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인도 원유수입선 다변화로 톤마일 증가

인도는 향후 20년 사이에 에너지 수요가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나라로 손꼽히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원유 구매선 다변화를 꾀하면서 톤마일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됨.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인도의 석유 소비량이 현재의 400만bpd에서 2040년에는 870만bpd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동성화인텍, 삼성중공업에 초저온보냉재 공급

동성화인텍은 삼성중공업과 1,477억원 규모의 LNG운반선 초저온보냉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함. 납기는 2024년 8월 2일까지이며 계약규모는 2019년 연간 매출액의 58.3% 규모라고 보도됨. (선박뉴스)